(762)

조 선

주체109
(2020)
1

차　　례

표지: 천지개벽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사진 홍　훈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밀영을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전구에 슴배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새기시며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로동자구(당시),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시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숙영소들 그리고 무포숙영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백두산전구 혁명전적지보존관리사업과 답사실태를 료해하시고 혁명전통교양의 력사적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새 세대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창조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에서 불멸의 생명력을 과시하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높이 떨치게 한것이 백두의 혁명전통이라는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현시기 조선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새 세대들을 사상정신적풍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에 있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높이에 이르게 하자는것이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목표이고 방침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게 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르는 혁명전적지들마다 전적지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청봉숙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일군들과 강사들, 종업원들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알자면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자기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에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데 이어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창숙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명수로동자구(당시)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백두산일대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무포숙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홍단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리상도시로 전변된 삼지연군 읍지구(당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된 량강도 삼지연군 읍지구(당시)에서 지난해 12월 2일 성대한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교양구획과 살림집구획, 상업봉사구획을 비롯한 여러 구획으로 형성된 삼지연시의 중심지구는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문명의 축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대지를 뒤흔들며 끝없이 메아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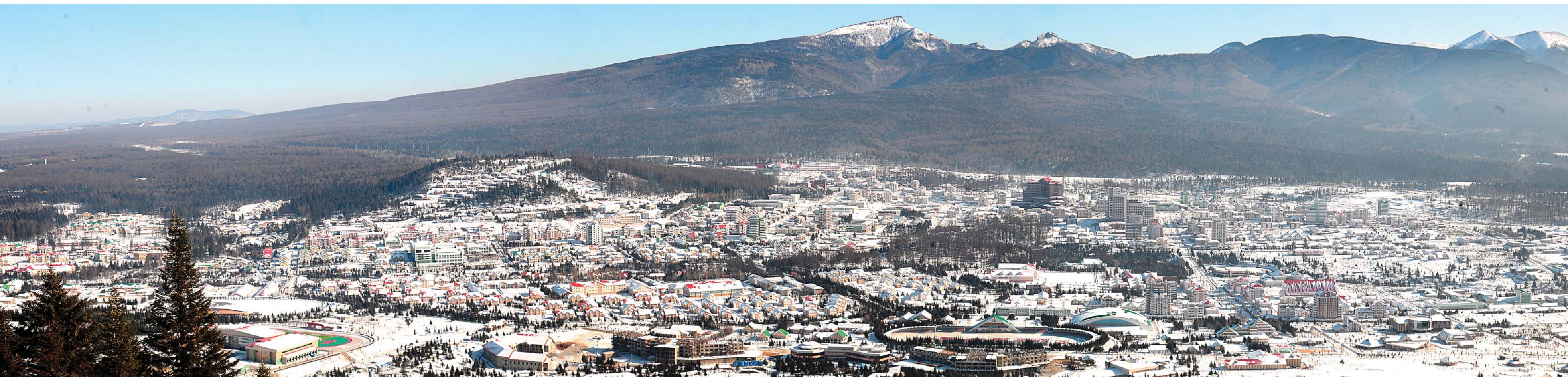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도당위원장, 인민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량강도안의 일군들이 근로자들과 건설자들, 학생소년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자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는 우렁찬 《만세!》의 합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문명을 전면적으로 꽃피우시며 조국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사진 안철룡, 홍광남
글 정기상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 준공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일떠선 거리들마다에 새집들이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들과 과외교양기지들도 꾸려져있다.

체육문화시설들과 봉사기지들도 꾸려져있다.

베개봉스키장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지방공업공장들도 일떠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

조선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사철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며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이 지난해 12월 3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의 일군, 종업원들, 경성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을 위한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면서 흙먼지만 날리던 중평지구를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조업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업테프를 끊으시고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같은 거창한 온실바다를 펼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사진 안철룡, 한광명
글 김 필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웃기는 행복해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주체108(2019)년 12월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눈부신 새 문명을 과시하며 인민의 복리를 활짝 꽃피우는 재부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속에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지구가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온천문화휴양지,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로 천지개벽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지난해 1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양덕의 산발들을 뒤흔들며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과 정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봉사관리소 종업원들, 양덕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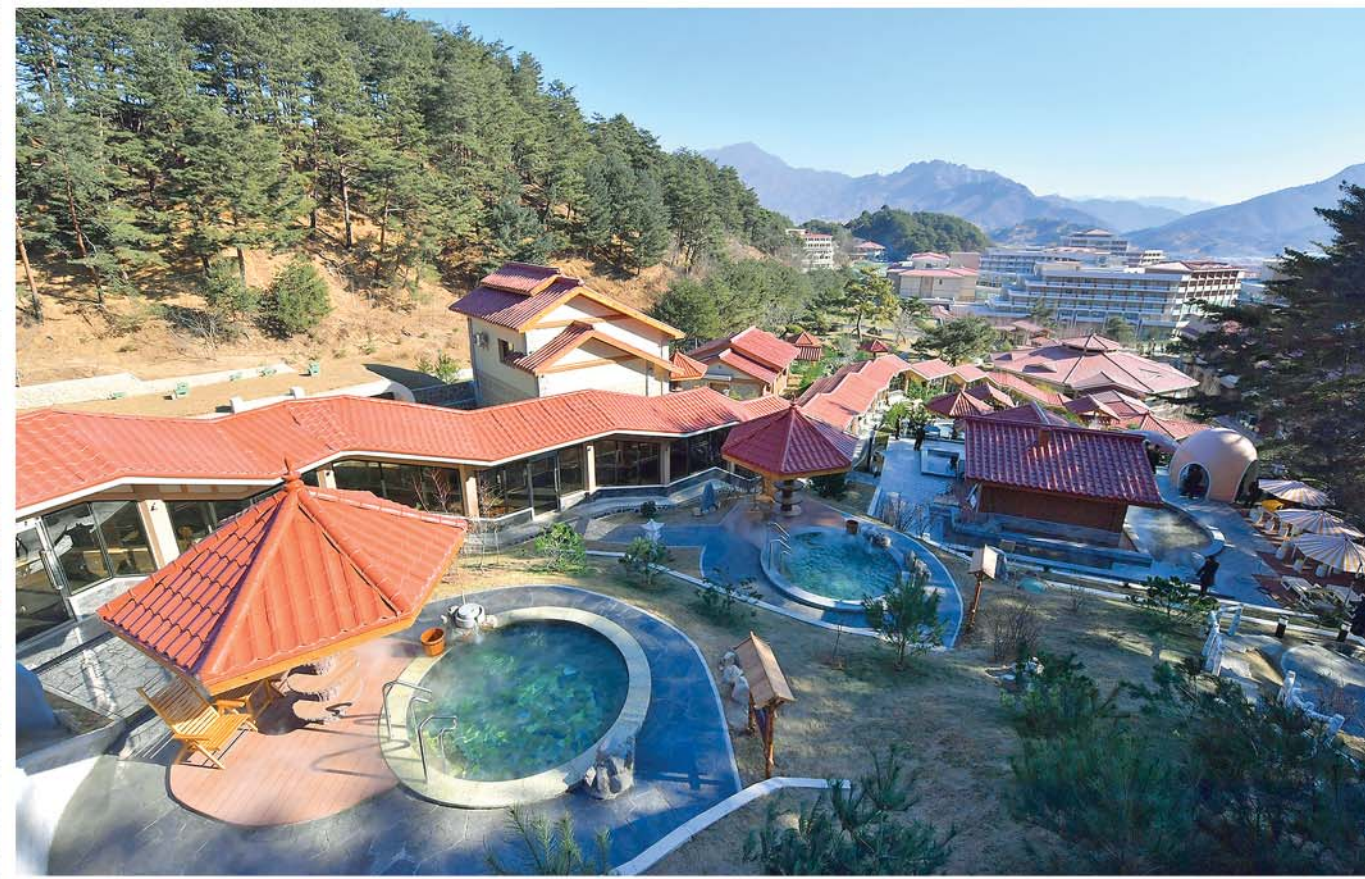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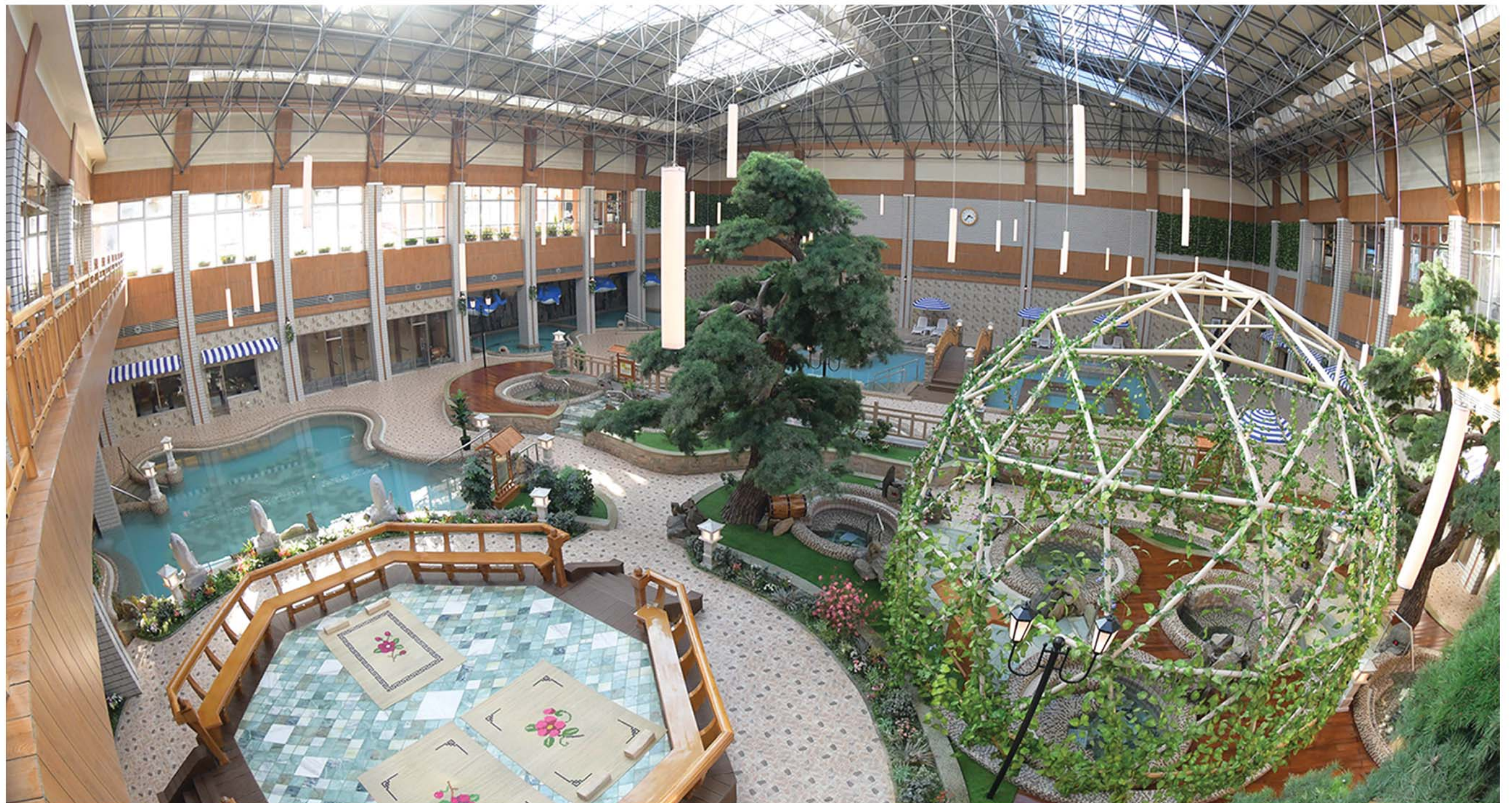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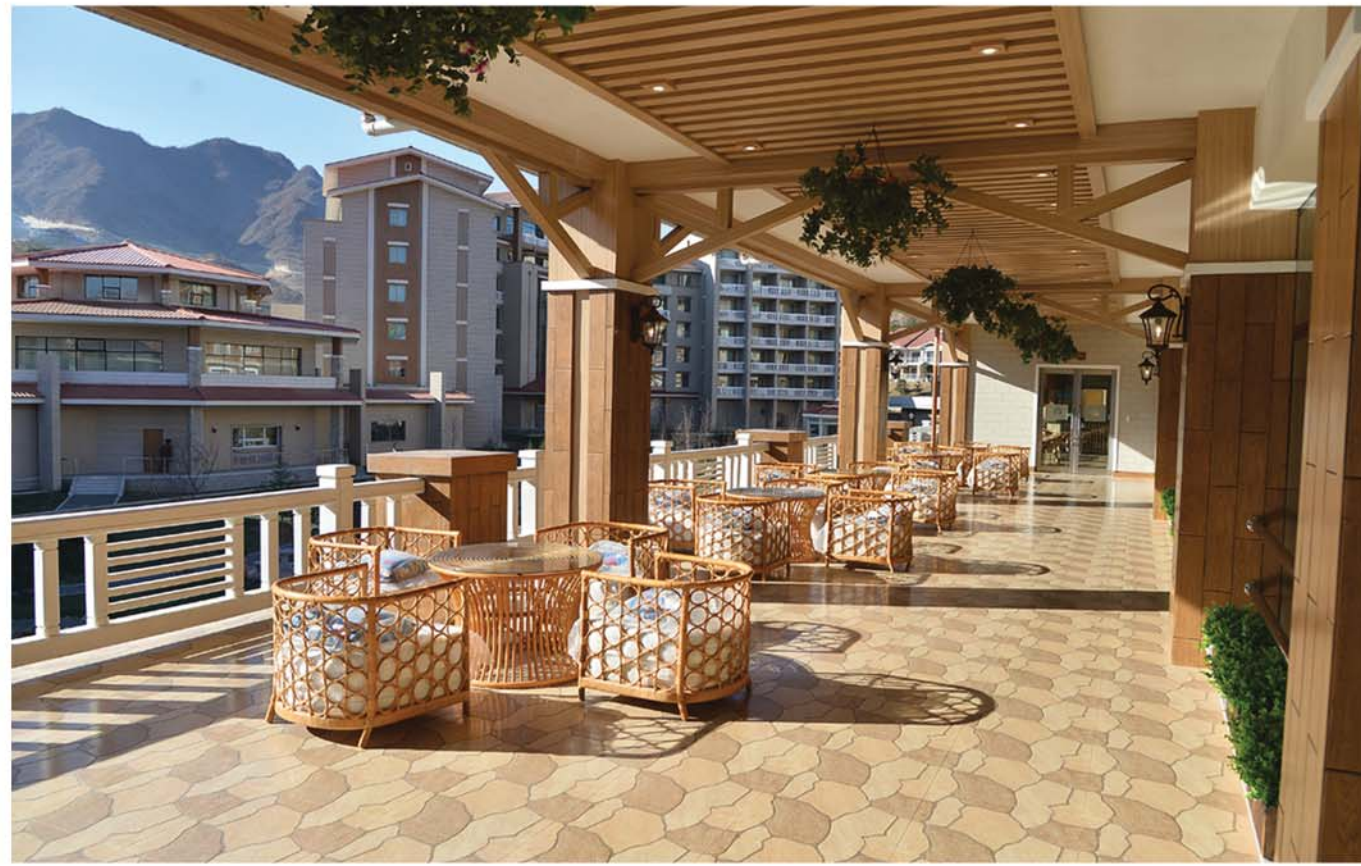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된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쳐 그 어떤 혹독한 도전도 뚫고나가는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세계앞에 다시한번 선언한 자력갱생로선의 거대한 승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또다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고,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려는 당의 구상이 또 하나 실현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온천문화, 온천문명을 안겨주게 된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이런 문명을 바로 인민군군인들의 손으로 건설한것이 더욱 기쁘다고, 일진광풍의 기상으로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만점짜리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진 홍 훈, 변찬우
글 최광호

다락식온천탕, 별장식온천탕, 부부온천탕, 어린이온탕 등 다양한 야외온천탕들이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꾸려져있다.

종합봉사소에는 모래욕치료실과 운동실도 있으며 민속오락실, 당구장, 식당과 여러가지 약물온탕을 할수 있는 온탕실도 있다.

휴양지에는 스키장과 조마장도 갖추어져있다.

손님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호텔과 려관들

포구마다 펼쳐지는 이채어경

지난해는 조선동해의 어장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 해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11월 21일까지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12월초까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포구마다에 황홀한 이채어경을 펼쳐놓았다.

해마다 10월 하순이면 조선동해안으로는 도루메기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며 그와 더불어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 위치하고있는 모든 수산단위들은 일제히 도루메기집중어로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의 집중어로시기를 앞두고 모든 고기배들의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고 연유, 어구 등을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던 각지의 수산사업소들이였다.

지난해 늦가을 조선동해안의 날씨는 여느때없이 변덕이 심했다.

어로공들의 앙양된 기세를 꺾으려는듯 나쁜 일기상태가 매일이다싶이 반복되였다.

때없이 계속되는 해상경보속에서도 사나운 격랑을 헤치면서 어로활동을 줄기차게 내밀던 어로공들은 지난해 11월 19일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것이였다.

자신께서 황금해의 고장, 단풍호의 고향으로 늘 정답게 부르시는 정든 수산사업소인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마중나온 사업소의 책임일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로공들과 가족들의 안부부터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새로 건설된 물고기가공장에 이어 종전에 있던 물고기가공장과 랭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보물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 가족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에게 일군들이 생산실적에만 빠져있지 말고 어로공들의 생활상편의를 잘 돌봐주고 가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줄데 대하여서도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은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에로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은 대중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모든 어장들마다에서 사업소별, 고기배별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지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항차당, 기망당, 연유t당 어획량을 부쩍 늘여나갔다.

그리고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과감한 어로활동을 들이대는것과 함께 세소어업활동도 배합하면서 성과를 확대하였다.

결과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 14호수산사업소, 5월27일수산사업소, 18호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수십개 단위가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였으며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 등에서도 목표를 돌파하였다.

드넓은 동해어장의 곳곳에서 어로활동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속에 선창이 넘쳐나게 물고기를 실은 고기배들이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마다로 연해연방 들이닥쳤다.

하륙장마다 폭포처럼 쏟아져 이채어경을 이루었던 물고기들이 만가동, 만부하를 건 가공장들을 거쳐 랭동저장고들마다에 그득그득 쌓이고 온 나라 가정들의 식탁들로까지 옮겨져 어디서나 웃음꽃이 피여났다.

사진 안철룡, 김진명
글 김 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함경북도 어랑천지구의 천험의 산악을 꿰지르며 거창하게 솟아오른 팔향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이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뚫고 헤치며 쌓아올린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7월 어랑천발전소건설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언제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함경북도인민들과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언제건설자들은 수력발전소건설사에 특기할 로력적위훈을 창조하면서 수십만㎥의 방대한 혼합물타입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팔향언제가 건설됨으로써 대규모동력기지인 어랑천발전소의 완공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함경북도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식이 지난해 12월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관계부문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건설자들, 발전소종업원들, 도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완공된 팔향언제를 돌아보았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준공을 축하하는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의 합창공연 《수령결사옹위의 언제우에 메아리치는 신념의 노래》를 관람하였다.

사진 안철원
글 박병훈

재능있는 어린이들

창광유치원의 홍은홍(왼쪽), 김정명(가운데), 김정윤(오른쪽)

무엇이나 척척

홍은홍, 김정명, 김정윤의 나이는 모두 6살.

그러나 보동보동한 작은 손들로 종이와 천을 자르거나 붙이면서 꽃과 나무, 짐승 등을 형상한 수공품들을 만들거나 색진흙으로 조각품들을 빚을 때면 흡사 이름난 공예가나 조각가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들에게는 주위세계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과 그것을 생동하게 재현하려는 열성 그리고 한번 해본것은 잊지 않는 기억력 등 남다른 특질이 있다.

교양원들의 지도속에 재미난 동화이야기며 유치원생활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작품들에 펼쳐가는 그들의 재능은 나날이 커만가고 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될래요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 홍자현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의 홍자현은 지난해 진행된 제12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특등을 하였다.

피아노를 잘 타는 그는 바둑, 태권도 《선수》이기도 하며 주산과 시짓기에서도 뛰여나다.

그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태권도동작을 수행하면서 속셈까지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산을 정확히 놓는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현이의 꿈은 앞으로 이름난 과학자가 되는것이다.

꼬마서예가

지난 시기 수많은 재간둥이들이 나온 모란봉구역 민흥유치원에서 재간둥이가 또 배출되였다.

붓글을 잘 쓰는 윤학성이다.

그는 지난 시기 30여명의 뛰여난 꼬마재간둥이들을 키워낸 훌륭한 교육자인 유치원 원장 리순영의 지도를 받으며 유치원 낮은반때부터 붓글쓰기를 시작하였다.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뜻과 획의 예술인 서예의 기법들을 거의나 터득하게 된 학성은 지난해에 있은 태양절경축 전국서예축전(유치원부류)에서 특등을 하였다.

모란봉구역 민흥유치원 윤학성

사진 손희연
글 최의림

태권도선수후비들이 자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태권도소조는 전국에 이름난 과외활동소조중의 하나이다.

궁전의 1층에 자리잡고있는 소조실은 매일 오후시간마다 민족의 정통무도를 배울 열망을 안고 찾아드는 남녀소조원들로 흥성인다.

소조에서는 해마다 소학교 4학년생들을 위주로 새 소조원들을 받아들인다.

태권도는 그 전체의 기초로 되는 기초손기술동작과 기초발기술동작 그리고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묶어 련습할수 있도록 만든 기본동작, 실지 정황을 가상하여 만든 24개의 틀, 맞서기, 호신술, 위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는 말도 있듯이 신입생들에게 있어 기본동작만도 3 200여개나 되는 태권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습득해 나가기란 결코 헐치 않다.

동작을 춤추듯이 하는가 하면 균형유지나 호흡조절을 잘못하든가 속도나 률동을 맞추지 못하여 반복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지도교원들의 세심한 지도와 선배들의 방조속에 그들은 점차 태권도의 매 동작들에 담겨진 과학적원리를 파악하면서 자기들의 수준을 제고해나가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틀과 맞서기, 호신술 등 태권도수련의 다음 단계에로 이행하게 된다.

태권도의 기술급수체계는 수련생들을 위한 10개의 급과 전문가들을 위한 9개의 단으로 구분되여있는데 소조원들은 소조생활을 마감할 무렵이면 보통 1단정도를 소유한다.

지난 기간 이곳 소조원들은 소백수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대회들뿐아니라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까지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소조생활은 소조원들이 민족의 정통무도의 우수성을 더 잘 알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더욱 빛내여갈 마음도 키우도록 하고있다.

하여 많은 졸업생들이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제경기무대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꾸려진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조선의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이 훌륭히 꾸려져 지난해 11월 28일에 준공되였다.

나라의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주는 교육교양거점, 과학연구보급기지로 새롭게 개건된 자연박물관에는 1만여점의 각종 표본들이 14개의 부문별전시구역에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8 000여㎡에 달하는 첨단기술개발원은 9개의 각이한 연구개발구역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전시실과 같은 학술교류구역, 강의실, 회의실을 비롯한 교육교양장소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미예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19》 진행

지난해 11월 중순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중앙동물원에서는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19》가 진행되였다.

풍산개에 대한 등록조사와 순종평가사업을 진행하며 풍산개의 표준형태와 생물학적특징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순종마리수를 늘이려는데 목적을 둔 품평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우수한 개체들이 출품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품평회는 동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풍산개를 키우는 주민들뿐아니라 풍산개기르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예비심사와 기본심사에서 합격되여 종합심사까지 올라온 대상들에 대해서는 혈통관계를 분석하고 기질검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암, 수별로 급수를 밝힌 풍산개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전국적인 범위에서 품평회가 진행되니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자기의 풍산개를 다른 지방의것들과 대비하여보면서 우결함을 알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고, 다음해에는 보다 멋있게 길러서 출품할 결심이라고 소감을 터놓았다.

최종심사에서는 함경남도, 황해북도가 단체 1등으로, 평양시, 량강도, 황해북도에서 출품된 풍산개들이 각각 개별 1등으로 평가되였다.

품평회기간 풍산개의 순종보존과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강습도 진행되였다.

풍산개는 주체45(1956)년 4월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국견으로 제정되였다.

사진 최원철
글 정기상

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조선의 교예

荣誉证书

OCT., 2019

PYONGYANG NATIONAL CIRCUS,
YOUR ACT "RUSSIAN SWING WITH TRAPEZE" IS AWARDED THE GOLD LION PRIZE OF THE 17th CHINA WUQIAO INTERNATIONAL CIRCUS FESTIVAL.

THE ORGANIZING COMMITTEE OF
CHINA WUQIAO INTERNATIONAL CIRCUS FESTIVAL

제1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출진을 앞두고》가 받은 금사자상과 상장

비파도의 희한한 물범무리

조선의 북동부 라선시의 앞바다에는 옛날의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둘레가 4.3㎞정도인 자그마한 섬이 있다.

륙지와 다리로 련결되여있는 비파도는 울창한 수림과 바다가의 기암절벽 등으로 절승을 이루고있어 시적으로도 이름난 관광지의 하나이다.

사철 맑고 푸른 주변의 바다에는 해삼, 성게, 섭을 비롯한 해산물 또한 매우 풍부한데 관광객들이 더우기 이곳을 즐겨찾는것은 섬의 자랑인 물범을 보기 위해서이다.

유람선을 타고 섬의 주변을 항행하느라면 날바다우에 솟은 커다란 바위들에 올라서 까만 점이 다문다문 박힌 흰 배를 드러낸채 한가로이 누워있거나 바다물면에 작은 대가리만을 내밀고 사람들을 마주 쳐다보는 물범들이 나타난다.

비둔한 몸집을 흔들며 바위우를 기여가다가는 썰매타듯 물속으로 미끄러져내려 유유히 헤염치기도 하는 물범들의 모습은 주변을 날아예는 갈매기들과 바위들에 부딪쳐 뿌려지는 흰 파도와 어울려 멋진 경관을 펼치고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비파도를 포함하고있는 조산만수역은 생태환경이 매우 좋아 물범을 비롯한 바다동물들의 더없는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적인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환경오염으로 하여 물범들의 생활령역은 점점 좁아지고 그 마리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있다.

허나 비파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물범들을 구경하지 못할가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곳에서 사는 물범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맞이할것이다.

글 김 필

새 우표 발행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모임에서 장애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다.

2019년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진행

년곳 : © 조선화보사 2020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1980338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